

DJ “한나라 혼자 주먹 휘두르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 면담서 범여권 대통합 역설

한나라 “훈수정치 중단해야”

범여권의 통합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범여권의 대선주자와 당 지도부를 연쇄 면담하면서 범여권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언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시작으로 25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26일 정동영 전 의장을 차례로 만난 데 이어 28일에는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 29일에는 민주당 박상천 대표를 연쇄 면담하고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의 예방도 금주중 받을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이 연쇄 면담을 통해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양대 정당 간의 ‘일대일’ 대결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발전의 길이라고 역설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여권 진영의 통합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DJ측은 독일방문 이후 범여권 인사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호남 민심’의 상징적 존재인 김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에 던지는 무게감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발언 시점도 미묘하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대통합 시한’으로 제시한 내달 14일을 목전에 두고 정파간 주도권 다툼만 치열할 뿐 범여권 통합은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빌어 ‘범여권 단일정당, 선거연합’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 자신의 저서 ‘개성에서 파리행 기자 표류’를 전달하고 있다. /연희뉴스

26일 정 전 의장과 면담에서는 “물러난 대통령이 나서서 것은 분수 넘치는 일”이라면서도 “한나라당이 상대없이 혼자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며 “사생결단(死生決斷)”, “시간이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여권의 대통합을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훈수정치’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할 뿐 아니라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훈수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우리당은 김 전 대통령의 발

언은 국민의 뜻을 생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구도를 주장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옹호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아무리 훈수를 뒤바야 모래알처럼 흩어진 범여권 주자들이 쉽게 뭉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권고지를 두고 경쟁하는 정치인들이 원로의 훈수 한마디에 자신의 욕망을 접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치 9단’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 불리기’ 나선 참평포럼

〈참여정부 평가포럼〉

내달 13일 광주·전남지부 발족

6월까지 전국 조직화 마무리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친노(親盧) 핵심인사들이 지난 4월말 결성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전국 조직화에 본격 착수했다.

참평포럼은 26일 대전·충남 포럼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6월13일 광주·전남, 15일 강원, 25일 충북, 27일 전북 지부를 잇따라 발족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지부 공동대표에는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 상임집행위원장도 포함됐다.

포럼은 다른 지역 지부 출범도 6월 안으로 마무리해 총 14개 전국 지부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어 광역권별 거점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 권역별 ‘평가포럼’도 구성하는 등 촘촘한 그물망 형태의 ‘세 불리기’에 나설 태세이다.

또 8월까지 지부별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주제로 5주 단위의 시민정책 교실을 개최하고, 정책별 쟁점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분부 차원의 월 1회 강연회와 지역별 순회강연도 계획하고 있다.

이병완 포럼 대표, 안희정 상임집행위원장 등과 참여정부 전직 장·차관 출신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측은 당초 이해찬 전 총리도 초빙을 검토했으나 대선출마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미뤘다.

현재 포럼 회원은 1천명 이상으로 불어났으며, 전국

조직화로 몸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포럼에는 최근 해체된 참정연 출신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별 참정연 조직의 일부가 포럼으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포럼측은 스스로 표방해 온 ‘정책세력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정치권에선 정치세력화를 위한 터잡기 성격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범여권 통합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친노-비노(非盧)간 결별 시나리오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우리당 리모델링 내지 영남신당, 친노정당 창당 가능성 등 대선을 앞둔 친노세력의 재편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포럼 조직이 선명한 친노 전선을 형성해가며 향후 친노그룹의 오픈프라이머리 등 대선국면에서 친노세력과 친노후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 역할을 하거나 제2의 ‘노사모’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익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참평포럼의 해체를 촉구해온 우리당내 비노세력은 비판 공세에 나섰다.

당 존재 문제를 놓고 노 대통령과 격론을 벌였던 정동영 의장은 “사전에 없는 ‘정책세력화’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내가며 조직화를 강행하는데 대해 더 이상 할말이 없다. 꼭 정체가구리 같다”(김현미), “정당당하게 정치세력화라고 떼뻑하야 하라”(정청래)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범여 양립체제 굳어지나

우리당, “제3지대서 대통합” 주장 신당-민주, “先 소통합 우선해야”

범여권 안팎에서 대통합에 대한 압박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여 정치세력들의 움직임은 열린우리당을 한 축으로 하고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 우리당 추가탈당파의 연대세력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양립 체제가 고착화해 가는 양상이다.

우리당은 범여권 정치세력과 외부의 시민사회세력이 큰 틀에서 결합하는 대통합을 현 시점에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상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신당과의 결합을 기반으로 우리당 추가탈당파 의원들이 가세하는 소통합을 우선 완성한 뒤 세력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순차통합론’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당 지도부는 6월14일이라는 시한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통합 논의의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밖으로는 민주당 박 대표의 강경론에 맞서 있는 데다 당내에서는 친노 대 비노그룹의 노선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통합신당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희뉴스

대립이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휴화산처럼 버티고 있어 온신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일단 6월 14일 이후에도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 이미 우리당을 탈당해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 일부와 ‘제3지대’를 형성하는 방식의 대통합을 계속 추진한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갈수록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당 지도부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당+민주당 소통합=20석을 가진 신당과 13석을 가진 민주당의 소통합 협상은 박상천 대표의 ‘배제론’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고, 당초 지난주 중에 기본정책합의서를 발표하려던 계획도 유보된 상태이다.

신당은 정동영 전 의장을 비롯한 우리당내 기존 대선 예비주자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다양한 후보군들이 통합세력에 참여해 경쟁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 전 의장 등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인물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진통에도 불구하고, 신당과 민주당이 처한 기본 조건을 볼 때 양측간 소통합 협상이 어떻게든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의 주말 나들이가

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해군이 지스함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던 노 대통령은 행사 후 귀로에 고향 부산의 한 호텔에서 부산상고 동문 30여명과 만나 회포를 풀 뒤 26일 오전 귀경했다.

이 자리에는 부인 권양숙 여사도 참석해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며, 노 대통령은 주로 화창시절 추억을 회색로 정답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부산상고 53회(66년 졸업)로, 지난달 8일에는 개성고교 교명이 바뀐 모교의 개교 112주년 기념 체육대회에 참석해 기념식수를 하는 등 모교 사람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에서의 동문 모임에는 부산상고 동기인 차의환 혁신관리수석이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이번 주말 외출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날 들어서만 연속으로 3번째여서다. 지난 주말 5·18 기

노대통령 울산서 고교동문과 회동

이달들어 3주 연속 주말 나들이

범여권 대통합 논의는

깨진 병 밥풀로 부치는 꼴

강운태 전 내무장관

대권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은 27일 최근 범여권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며 지금 ‘깨진 유리병을 밥풀로 부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담양군 남도대학 대강당에서 전남지구 JC회원 300여명을 상대로 한 초청특강을 갖고 “통합의 가치가 지역이 아닌 비전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신을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또 “범여권 통합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대통합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면서 새 정치의 기준으로 ▲지역주의의 타파 ▲창조적 개혁주의 ▲봉사주의를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공무원합격. 한빛이 주도한다

공무원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두배 빠른 합격시스템 - 한빛 천하통일 - 직접 체험해보십시오

79급공무원전강좌 개설

종합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이론반 2개월 완성, 서울시 문풀이반 1개월 완성

농업직 "양승훈 교수팀" 특별초빙

호텔급 대형학원! 최강의 프로그램! 최고의 학습시설!

이구동성! 누가 뭐래도 한빛이 최고!

★ 개강 6월 1일 (주/야간반 예약접수중) ★

국어/송태웅

국어/서술한

영어/신석

영어/박철우

한국사/김영근

행정법/이영표

행정법/박종연

행정법/이승철

교육학/전재홍

세법, 회계학/임기림

사회복지학/정형운

형사법/손동규

헌법/손요호

경제학/이유봉

농업직/양승훈

형사법/신희승

공무원학원의 1등브랜드 **한빛고시학원** 전대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자매학원 :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문 복구청약 262-3553)

사람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람공채 모집안내

사람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 ① 과목별, 수업실기, 면접 각학교 채용규정에 맞게 지도함
- ② 교육방법: 개인별면접, 직접강의, 동영상강의, 특별자료제공
- ③ 특별 영양교사 합격의 지름길(전국 유일 강의) 교육학+전공(교육방법을 가르쳐줌)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